

좌부리 부락의 개발에 관한提言

농 공 학 회 정 창 주 工 學 博 士

우리는 지금 급변하는 환경속에서 살고 있다. 새로운 공장 건물 도로등이 우리 주변에 즐기차게 건설되고 있는 것과 같이 농촌에서도 도로가 개설되고 초가집이 사라지고 우물 변소등의 위생 시설이 개선되고 부영이 개량되고 있다.

경제적이고 보수적이며 피동적인 농민이 수세기동안 받아내려오던 복은 생활환경을 개선 개량하고 잘 살기 위한 새마을 운동에 모두 참여하고 있다.

불과 일이년 사이에 이룩해 놓은 이같은 농촌의 변화상을 직접 눈으로 보지 않고서는 실감할 수 없음을 알았다. 이러한 농촌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농민들의 피눈물나는 노력을 높이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농촌의 환경과 생산기반의 정비 조성은 새마을 운동이 표적하는 제일차적 사업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제일차적 사업에 뒤따를 사업은 증산 및 소득증대를 통한 내실을 기하는 사업이어야 할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방문한 농촌마다 소득증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목표와 실적을 소상하게 설명하는 것을 들었음에 관심과 흥미를 불러 일으키는데 충분하다.

이와 같이 잘 살기 위하여 노력하는 농민들에게 실망을 주어서는 안 된다. 노력의 댓가로서 얻어진 환경의 정비조성의 성과를 농민들은 만족하고 있다. 노력하면 소득이 증대되고 잘 살 수 있다는 실증이 나타날때 농민은 결코 실망하지 않을 것이고 보다 잘 살 수 있는 길을 스스로 모색해 나갈 것이다. 잘 살기 위하여 부풀어 있는 농민의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증산 및 소득증대의 방안을 찾아내는데 또 그 방안을 수행하는데 당면될 여러가지 기술적인 문제점을 같이 연구하고 해답을 구하는데 봉사하는 것이 우리 과학인들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생각한다.

우리 한국과학기술단체 총 연합회와 결연을 맺은 충남 온양읍 좌부리 부락은 거의 80%의 농가가 10단 미만의 경영규모를 가지는 전형적인 소농부락이지만 새마을 운동의 열의에 있어서는 방만한 어느 부락에 못지않다고 느꼈다. 마을 구호에서 엿보이듯이 전체 농경지가 이모작으로 활용되고 있었고 축산을 통한 소득 증대사업도 활발하였으며 상당수의 지식농민을 갖고 있었다. 불과 10리 거리에 관광도시로서의 온양이 위치하고 있어 농업소득 및 농의소득 증대의 잠재성이 있는 농촌이다. 예비조사에 참가한 일원으로서 좌부리 부락의 개발을 위하여 몇 가지 제언한다.

1. 우선 무엇보다도 이 부락 개발을 위한 종합적이고 구체

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 부락의 지역적 특성 경제적 사회적 여건 가용자원 물리적 시설 개발 잠재성을 진단하고 개발의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을 조사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계획은 관계되는 분야의 전문가와 주민의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개발의 지표와 년차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수행 전과정을 통하여 자체적 및 객관적 평가가 조직적으로 배풀어져야 할 것이다. 아무리 전문가라 할지라도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면 모처럼의 과학인의 현실 참여와 노력이 헛되게 될 것이니 하나의 조직화된 팀을 형성하여 계획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참여 하여야 할 것이다.

2. 둘째로는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새마을 운동에 기술적 지도를 하기 위하여 특정부락과 자매결연을 맺는 것은 그 성과를 한 부락에만 국한시킬려고 하는 것은 아니며 그 효과를 다른 부락에도 파급시킬려고 하는데 있으므로 여러가지 면에서 시범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소득의 증대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 이외에 농업의 과학화 농촌의 근대화에 의한 이상적인 농촌건설의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의 성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면 과충주체의 농민 과학화 전사회]를 이마을에서 개최하고 전시 효과를 거두는 것도 생각해 볼만 하다.

3. 셋째로 농민의 소득증대는 생산성의 재고에서 이룩될 수 있으며 농업의 근대화도 인력축적에 의한 육은 농사방법으로는 달성될 수 없으므로 농업의 기계화를 강조 안할 수 없다.

좌부리 부락은 농업기계로서 탈곡기와 미스트기 몇 대씩만을 갖고 있으므로 농업의 원시성을 여기에서 엿볼 수 있다. 토지 생산성과 노동생산성을 다 같이 제고시키기 위하여서는 미백재배의 기계화는 물론 다른 생산수단도 가능한 한 기계를 대체하고 유휴노동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 지역의 농경지는 대단히 평탄하므로 기계이용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경지정리도 대단히 쉽게 이룩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갖고 있었다.

4. 네째로 축산을 부업으로 하는 농기구가 많으므로 그 부산물로서의 요분에서 메탄가스를 발생시켜 긴박한 농촌연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망이 좋았다. 이미 몇개 농가에서 성공적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금년 내에 10여 개소에 설치할 계획이다. 그러나 시설규모와 설치방법 등에 연구의 여지가 있다고 느껴졌으며 현장을 통한 과학인의 실험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싶다.